



광주예술의전당이 오는 4월 광주상설공연 라인업을 공개했다. 사진은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의 신 마당극 '뛰는 토선생 위에 나는 별주부' 공연 모습.

장희구 박사 (545)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1) -택당 이식
有魚名曰目 海族題品卑(유어명왈목 해족제품비)
膏腴不自潤 形質本非奇(고유부자운 형질본비기)
목어라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해산물 중에서 제일 낮은 품질이라
고기에게 기름이 없고 모양새도 없네.

그 모양새 또한 특별히 볼 만한 것이 없네



위 시제는 6행 4수로 돼 있는 고시품인데, 임의로 4행 6수로 나눴다. 따라서 운자와 평측면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게 됨을 양지 바란다. 다만 위 시제를 별도로 둔 것은 사람의 입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개념을 상기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먼저 밝힌다. 또한 민중의 애환을 담고 있는 시상이며 서민적

이기 때문이다. '목어라고 이름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제일 낮은 거'라면서 읊었던 시한수를 번안해 본다.

'그 모양새 또한 특별히 볼 만한 것이 없었네'(還目魚)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첫 구인 오언율시풍이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18년 폐모론이 일어나자 경기도 지평으로 낙향해 남한강변에 택풍당을 짓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던 인물이다. 1621년 누차 출사의 명을 받았으나 거부했으므로 왕명을 어겼다가 한 때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한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목어라고 이름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제일 낮은 거라네 // 번지르르하게 기름진 고기도 아닌데다가 / 그 모양새 또한 볼 만한 것이 없었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네!'로 번역된다. 모양새를 꾸민다 해도 그게 그것이라는 뜻으로 '말짱 도루묵'이라 한다. 별개 아니라라는 뜻이다. 도루묵은 환목어(還目魚)라고 해 동해 바다에서 많이 잡혔다. 한자로는 목어(目魚) 혹은 환목어(還麥魚)라고 했는데, 못생긴 도루묵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

시인은 이란데 착안해 도루묵을 통해 시상을 떠올렸다. 첫 구에서는 목어의 이름과 품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목어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낮은 거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임금이 환궁하고서 수랏상의 고기를 들지 않았으랴.

화자는 목어가 번지르르하게 기름진 고기도 아닌데다가 그 모양도 볼 만하게 없다고 했다. 비록 모양은 못생긴 고기지만 이어지는 연에서는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다는 시적인 동기가 있겠다. 이어진 둘째 연에서는 '그래도 씹어 보면 그 맛이 담백하여 / 겨울철 술안주로는 그런데로 괜찮았지 // 전에 임금님이 난리를 피해 오셔서 /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셨을 때'라고 해 도루묵이 범상치 않은 고기임을 암시한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有: 있다. 魚: 물고기. 名曰: 이름 부르다. 目: 눈. 여기서 앞의 '魚'자와 함께 어울려 [目魚]라 하는 도루묵을 뜻함. 海族: 어족. 해산물. 題: 제목하다. 이름 붙여다. 品卑: 품질이 낮다. // 膏: 기름이다. 腴: 아랫배 살피다. 不自潤: 기름지지도 않다. 形質: 모양. 本非奇: 본래 볼만한 것이 없다

따사로운 봄과 만나는 합창·발레·국악 한마당

4월 광주상설공연 소개

따사로운 봄햇살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광주상설공연 4월 라인업이 공개됐다.

광주예술의전당은 오는 4월에도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합창·발레·국악 등 다채로운 광주상설공연을 선보인다.

'토요상설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시립예술단체 공연으로 구성됐다.

4월 첫 무대는 6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봄의 여행'이다. 천사 같은 목소리의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들과 NS 재즈밴드가 협연해 색다른 무대를 준비한다. NS 재즈밴드는 기타, 피아노, 베이스, 드럼, 보컬의 5인조 혼성팀으로, 지역에 재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들려주는 '봄의 여행'부터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의 '新별주부' 마당극까지

노력하고 있는 팀이다. 이날 무대에서는 'Aprile', '고향의 봄', '나물캐는 처녀', '벚꽃엔딩' 등 봄 내음 가득한 노래들이 시민들과 만난다.

13일에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무대다. 발레 무대를 가까이에서, 해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로 이날 공연에서는 '곰사슴이 망아지' 중 '프레스코'를 비롯해 인도를 배경으로 한 이국적인 발레 작품 '라 비야데르 중 Indian Dance' 전사들의 북춤을 선사한다.

20일 시립합창단은 '성악가와 세상의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을 펼친다.

한국·이탈리아·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가곡과 성악가들의 노래로 풍성한 합창 무대다. 어딘가에서 익숙하게 들어봤던 아름다운 노래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27일에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봄!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주제로 이별의 합주곡, 대금 연주, 노래극 '난감하게' 등 국악 무대를 연다.

매주 일요일 '국악상설공연'에서는 올해 광주상설공연 전통예술공연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을 소개한다.

4월 공연은 전통국악양상블 놀음판

의 新 마당극 '뛰는 토선생 위에 나는 별주부'다. 탈모에 걸린 용왕의 지시로 용궁의 만년 인턴사원 별주부가 정구작을 대가로 토선생의 간을 구하러 갔다가 토선생과의 달리기 대결을 펼치고 산신령을 만나 '건장 십계명'을 얻게 되는 내용이다. 판소리 수궁가와 이슬우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융합한 새로운 마당극으로, 익숙한 옛이야기를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한편 22일 광주상설공연은 오는 12월 22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4월 티켓 오픈일은 27일 오전 10시부터 모든 좌석은 무료로 사전예매하면 된다. 일정 및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티켓링크 또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613-8379. /최명진 기자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개최 '시동'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최...총감독 선임 등 논의

(재)전남문화재단은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첫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명창환 (재)전남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 사무국장, 자문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위촉식과 총감독 선임방안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논의했다.

자문위원은 수목과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을 고루 갖춘 전문가로 예술계, 학계, 전시·기획, 유관기관 등 4개 분야 37명으로 구성했다.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이태호 명지대 석좌교수, 전승보 경기도립미술관장, 홍경한 미술평론가, 최준호

광주대 교수 등 국내 수목 관련 석학 및 저명한 전시기획 전문가를 신규 위촉함으로써 2025 수목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위원들은 비엔날레는 미술관 전시와 달리 동시대 미술현장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적 성격이 크므로 방향과 목적성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적 플랜과 전문미술인력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제비엔날레인 만큼 해외 문

화예술기관과 대학이나 국제 아트페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목비엔날레의 전통수목을 유지해 나가면서 현대수목과 융합을 위한 노력,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2개월 간 개최되며 수목전시, 학술심포지엄, 국제제전전시, 교육·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